



# 이럴 때는 이런 뜻, 반려견 마음 읽기



반려견이 눈 앞에서 재롱을 피울 때는 귀엽기 그지 없지만 그렇다고 늘 재롱만 피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오죽하면 아이 키우기보다 힘들다는 말도 있을까?

한번 인연을 맺으면 적어도 10년을 넘게 함께 살아야 할 반려견.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반려견의 마음을 읽어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한 지침서인 <펫 닥터스>(비타북스, 2016)에서 발췌한 반려견의 습성 및 돌보는 방법이다.

### ■ 반려견의 기본 습성

#### ● 왜 짚을까?

개는 욕구 충족을 위해 짚기도 하고 무언가를 호소하기 위해 짚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같이 놀아달라고 할 때 꼬리를 흔들며 짚고, 배가 고프거나 산책하고 싶을 때, 배변을 하고 싶을 때도 짚는데 이런 경우에는 욕구가 해소되면 더는 짚지 않는다. 이런 욕구와 상관없이 오랜 시간 계속 짚는다면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관심을 받고 싶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개가 짚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것이 보호자의 일이다.

#### ● 왜 물까?

어린 강아지는 놀이의 의미로 물고 흔들며 스스로 힘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또 생후 4개월 정도가 되면 이를 하기 때문에 잇몸이 간지러워 온갖 물건을 물기 시작한다. 이때 사람 손가락을 물며 놀던 강아지는 성견이 되어서도 무는 습관이 남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활용해 놀 수 있도록 가르친다.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미로 물게 된다. 발정기나 임신기 등 특히 예민한 시기에는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 ● 왜 영역 표시를 할까?

개를 키우다 보면 여기저기 영역표시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알리는 의도로, 모든 포유류 동물의 본능적인 습성이다. 이때 한 발을 들고 오줌을 싸는 이유는 항문샘에서 배출하는 분비액의 냄새를 다른 개들이 잘 맡을 수 있도록 코 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문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영역 표시를 할 때는 반응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방접종은 단순히 약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균주를 주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쇼크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또 접종약이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냉장 보관이 잘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 ■ 적절한 사료량은?

반려견에게 사료를 적게 주면 저혈당쇼크가 올 수 있다. 반려견을 작게 키우려고 일부러 사료를 적게 먹이기도 하는데, 이는 사랑하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일이다. 절대 사료를 적게 먹는다고 작게 성장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성장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료의 양과 성장 크기는 거의 상관이 없다.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하루에 체중의 6%를 사료로 먹어야 한다. 사료가 이보다 부족하면 언제라도 저혈당쇼크가 올 수 있다.

#### ● 왜 꼬리를 흔들까?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흔들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났을 때도 급하게 꼬리를 흔든다. 또 꼬리를 천천히 흔들면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 ■ 예방접종은 언제?

입양한 날로부터 7~10일경에 예방접종 시킨다 강아지가 설사와 구토를 해서 병원을 찾는 초보 보호자들이 많다. 강아지가 설사와 구토를 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예방접종을 안 한 상태에서 설사를 하면 대부분 전염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 전염병은 7~10일의 잠복기가 지난 뒤에 증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양한 날부터 7~10일 정도 지켜보고 증상이 없을 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스케줄은 그 시기에 유행하는 질병에 따라, 지역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단,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드시 매년 받아야 한다.

일부 보호자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자가 접종을 하는

### ■ 목욕시킬 땐 전용 샴푸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 사람이 사용하는 샴푸를 사용하는 보호자들이 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면 강아지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사람 피부와 강아지 피부는 pH가 다르다. 사람 피부는 4.5~6.5pH이고 강아지 피부는 7.5pH정도이다. 사람의 피부층은 10~15층이지만 강아지의 피부층은 5~10층으로 사람보다 약하다. 따라서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요즘은 물 없이 거품만 내서 닦아내는 드라이 샴푸도 있다. 물 없이 급하게 씻길 때나 일부분만 씻길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와 발을 씻길 때도 매번 물로 씻기면 습진이나 피부염이 생기기 쉬우니 이런 드라이 샴푸를 활용하자.



##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